

2016 새 설계

이 명 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中企 우선 지원·지역경제 발전 대안 제시”

4279억원 年 0.75% 저리 운용

자동차부품 등 지역 전략산업 先 지원

사회시설·자매결연 학생 후원 지속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기 회복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금융지원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사연구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이명중 본부장은 11일 오후 한 해 청사진을 밝혔다.

먼저, 이 본부장은 국내와 경제의 성장세가 당분간 완만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 본부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유지,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안팎의 여건을 보면 경제의 순탄한 회복을 저해할 위험요인들이 곳곳에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의 비동조화 지속 등으로 국제자본 이동이 확대되면서 기초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시장국이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재차 불안해지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부문간 불균형,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 그동안 크게 늘어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미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거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면서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4279억원을 연 0.75%의 저리로

운용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현재 4417개 업체가 동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지역 내 산업비중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금형산업, 광산업, 1차 철강, 금속가공 제품 등을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다.

그는 또 “자체조사연구, 외부공동연구 등의 조사연구업무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역경제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기업체 담당자분들과 함께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장은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기업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올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지역 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해 이들 기업의 성장 제약요인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라든지 전남 지역 6차 산업 발전방안, 빛가람 혁신도시의 이점에 따른 소비변화’ 등을 꼽았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지역 금융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그는 “지역 소외받은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시영종합사회복지관, 성심회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성금전달과 노력봉사 활동을 하겠다”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자매결연 학생(5명)에 대한 후원금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비맥주, 광주 인재육성기금 1500만원 기탁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11일 자사 브랜드 ‘카스’와 ‘프리미어 OB’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시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 조승훈 호남권역 본부장은 이날 광주시청을 방문해 운영현황광주시장에게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빛고를 장학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성환 광주 공장장 등 오비맥주와 광주시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생산공장을 둔 오비맥주는 200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총 3억8500만 원의 장학금을 광주시에 기탁했다. 기탁된 장학금은 광주 지역에서 판매된 오비맥주 제품 수익의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지역 인재의 생활비 및 학업 지원 등을 위해 쓰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中企 설 자금 3천억 지원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다가오는 설에 자금예로를 겪고 있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자금 3000억원의 ‘설 중소기업 특별 자금대출’을 편성, 8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광주은행은 3000억원의 만기연장 자금을 함께 편성해 동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원할 경우 만기연장 해주기로 했다. 광주은행의 이번 특별자금 대출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 자금을 설 이전부터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발 빠르게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설 특별자금 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0억원이며,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 차입(C2)시 최고 1.5%포인트까지 우대하여 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광주은행 여신전략부 이동수 부장은 “이번 설 특별 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과 함께하는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894.84 (-22.78)

↓ 금리 (국고채 3년) 1.64% (-0.03)

↓ 코스닥 674.96 (-7.60)

↑ 환율 (USD) 1209.80원 (+11.70)



효성, 세계 반도체 첨단소재 시장 공략

울산·中 취저우시에 공장 신·증설...10년간 6천억 투자

효성이 산업용 특수가스인 NF₃(삼불화질소) 생산공장을 중국과 한국에 각각 신설, 증설하며 첨단 화학소재 사업을 강화한다.

효성은 중국 저장성(浙江省) 취저우(衢州)시에 약 2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자, 내년 상반기까지 연간 2500t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사진>

또 울산 남구 용연 3공장 부지에서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1250t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증설해 오는 3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 취저우 공장은 효성의 화학소재 분야 첫 해외공장이다. 효성은 이를 통해 물류비용과 생산 원가를 절감

하고 중국 내수시장의 수요를 맞춰 시장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을 지난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 176조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중국 반도체 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소비규모를 10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효성은 향후 10년간 한국과 중국에 약 6000억원을 투자, 국내의 전체 생산량 1만 t에 달하는 생산능력을 갖춰 글로벌 특수 가스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로 했다. 효성은 이번 중국 진출로 NF₃ 사업 분야의 세계 2위 기업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민 대통령’ 오늘 농협중앙회장 선거

3파전...김병원 전남평조합장 당선여부 관심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2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농협중앙회장은 지역 농협 조합장인 대의원 291명과 현직 중앙회장 1명 등 292명이 투표로 뽑는데 전남농협 김병원(63) 조합장 등 6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후보 소견 발표에 이어 11시 4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차 투표와 개표가 이뤄진다.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당선자가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 통지서가 전달되고 선거가 종료된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순으로 이성희(67) 전 낙생농협 조합장, 최덕규(66) 합천가야 농협 조합장, 하규호(58) 경북농협경영인 조합장협의회장, 박준식(76)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순재(51) 전 동

읍농협 조합장, 김병원 전 농협양곡 대표 등이 후보다.

농협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김병원·이성희·최덕규 후보의 3파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결국 수도권과 영남권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1, 2위간 결선 투표 과정에 영남권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직 최원병, 전직 정대근 회장이 각각 경북, 경남 출신으로 영남권 출신이다. 김병원 후보는 농협양곡 대표를 지냈고, 이성희 후보는 경기도 성남 낙생농협조합장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2004년 농협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직이 비상임으로 전환된 데 이어 2009년부터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농협중앙회장은 342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좌지우지하는 농협 내 최고 권력자로 통한다.

/오광록기자 kroh@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

파주맛집
5회 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가발**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백미트
나주명행
500m
구대교
大山프리모가발